

대학 원서 작성 시 이런 실수 하면 떨어진다



▲ 대입 원서는 신중을 기해 작성해야 한다. 사진=shutterstock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대학에 지원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 원서 작성이다.

원서는 입학 사정관과 학생이 만나는 최일선의 접점이다. 입학 사정관들은 거의 지원학생들을 만나지 못하고 원서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원서는 정말 중요하다.

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1. 원서 작성 전 작성 요령을 자세히 숙지한다.

각 대학 어드미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항목별로 지원서를 어떻게 작성할 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이런 설명을 읽기 싫어한다. 작성 전 먼저 한 번 읽어보고 시작해야 한다.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결코 너그럽지 않다.

2.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라.

이름, 생년월일, 학교 이름 등 개인 정보는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심지어 이름 스펠링이나 학교 스펠링을 틀리기도 한다. 이름은 반드시 여권상의 공식 영문 이름으로 기입한다.

3. 카운슬러와 상의해야 한다.

대학 지원 과정에서 고등학교의 카운슬러 역할은 대단히 크다. 학교 카운슬러가 도와줘야 하는 부분, 즉 학교 성적표나 School report 등을 보내주지 않으면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는지 카운슬러에게 반드시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항상 카운슬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점검하고 챙기도록 한다.

4. 에세이에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에세이는 미국 대학 진학에서 점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Common App 공통 원서 에세이는 글자수를 650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에세이를 대필하고 도용하는 경우가 있다. 도덕적 해이는 곧 탈락을 의미한다. 이것은 대학에서나 이후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다.

5. 불문명한 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

요즘 학생들은 이상한 약어와 문자를 쓰기 좋아하는 듯하다. 친구들끼리 주고 받는 메일에서나 쓸 문자들을 원서에 써서는 안 된다. 반드시 Full로 표기해야 한다.

6. 지나치게 자세한 내용은 안 하지만 못하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공통 원서는 중요한 것 10개를 쓰도록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쓰지 않고 숫자만 채우려 든다. 자잘한 것 열 개보다 중요한 것 2-3개가 더 효과가 크다. 의미가 없는 것은 resume에서 과감하게 빼라.

7. 기본 사항을 정확히 명기하라.

학교와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등은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확인 또 확인을 하라. 가능하면 이메일은 남이 알아보기 쉬운 것으로 하라. 숫자1과 알파벳 l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가능하면 입시용으로 간단하고 정확한 이메일을 만들어라. evil 등 장난기 있는 아이디는 피하도록 한다.

8. 철자법과 문법은 틀리면 안 된다.

철자법이나 문법이 틀리면 우선 매우 인상이 나빠진다. 사소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탈락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에세이에서 많이 발생한다.

9. 에세이를 대학교 이름 바꿔 보내면 안 된다.

치명적인 실수다. 이런 실수는 공통 에세이가 아닌 Supplement 에세이에서 발생을 한다. 상위권 대학은 거의 모두 부가에세이가 있다.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런 실수를 범한다. 하버드 대학에 갈 에세이를 예일에 보냈다면 이것은 곧 탈락을 뜻한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범한다. 한 개의 에세이를 써서 여러 대학에 보내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10. 원서 작성이 끝났다고 곧바로 보내지 마라.

원서 작성 작업은 참으로 길고 힘든 작업이다. 원서의 칸을 채우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세스가 정말 힘들다. 학교에서 계속 메일이 날라오고 거기에 맞춰 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학생들은 고생스럽게 원서를 썼다고 곧바로 submit를 눌러 버린다. 곧바로 제출해 놓고 "끝났다"고 안심을 한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원서를 작성한 뒤 검토에 검토를 반복해야 한다.

졸업 후 고소득 전공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고액연봉을 받는 전공은 엔지니어링(Engineering) 계열이다. 석유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핵공학, 토목공학, 화학공학, 산업공학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공학/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분야에 재능이 있어야 하고 특히 수학과 물리학에 흥미를 느끼고 좋아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엔지니어링 계열 전공 이외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공은 없을까?

Computer Science, Nursing, Applied Math, Physics, Math Computer Scien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management, Computer In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등은 비엔지니어링 계열로 졸업 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공들이다.

미국에서 연간 배출되는 컴퓨터 사이언스(Computer Science) 전공자는 2만여 명이다. 이들의 첫 연봉은 \$53,834이고 중견 연봉은 \$94,530이다. 응용수학(Applied Math) 전공자는 연간 3,000여 명이 배출된다. 초봉 평균은 \$52,199이고, 중견 연봉은 \$101,857로 매우 높다. 응용수학의 상위 랭킹은 하버드 등 아이비리그급 대학들이 차지하고 있다. 대입정보업체 'Collegefactual' 이 선정한 주립대학의 응용수학 랭킹 1-5위는 다음과 같다. 괄호 속은 소재지이다.

- 1위: 스톤브룩(Stony Brook, NY)
- 2위: UC버클리(Berkeley, CA)
- 3위: 일리노이 공대(Chicago, IL)
- 4위: UCLA(LA, CA)
- 5위: 조지아텍(Atlanta, GA)

수학이 재미있는 학생들은 응용수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응용수학은 고소득 직종이다. 사진=shutterstock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